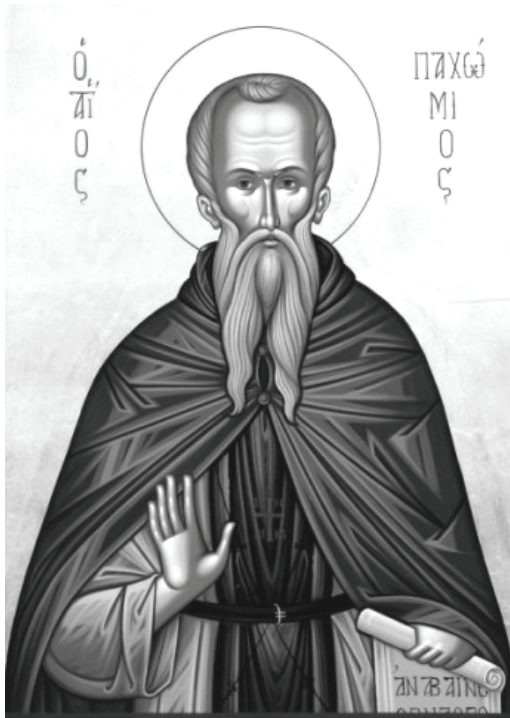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파코미오스 대수사

부활 후 제3주일 / 향유 가진 여인 주일

성 에베파니오스 주교

제2조, 조과복음 4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제1, 2, 3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제2조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모두 다 모여' / 부활절 예식서 38
- 아리마태아 요셉 축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4
- 향유 가진 여인 주일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74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6, 1-7 / 252, 봉독서 42
- 복음경 : 마르코 15, 43-16, 8 / 98, B 14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성인들이 삶으로 전해 주는 구원의 말씀

성 파코미오스 대수사

우리 교회는 5월 15일에 공동 생활의 수도원의 창시자인 거룩한 파코미오스 성인(A.D. 290~346)을 축일로 기념합니다. 이 거룩한 수도사에게 바쳐지는 우리 교회의 성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눈물로 메마른 사막을 가꾸셨도다. ...”

실제로 거룩한 수도자들의 기도와 순종과 거룩한 삶은 고대의 이집트와 요르단의 황

량한 사막을 개간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생성 또한 순화시켰습니다.

농부처럼, 과일을 기르는 사람들처럼, 교회의 영광인 고대의 수도사들은 그들의 업적과 덕으로 하느님의 영적 농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부’로 존재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포도원의 일꾼’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고 여기에는 계시지 않다." (마르코 16, 6) 안식일 다음 날,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세 여인이 주님이 묻히신 무덤에 갔을 때 들었던 첫 번째 부활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고,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첫 소식에 여인들은 빈 무덤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두 번째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마르코 16, 7)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여인들이 들었던 부활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래아로 가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을 만나려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덤이 아니라 갈릴래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래아! 그곳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하느님 나라를 소개하며 공생애를 보내셨던 곳입니다. 또 한편으로 그곳은 역사의 질곡이 있는 땅이며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 곳이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절망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사명을 새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예수님을 처음 만나 소명을 들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부활 대축일 때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매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자비가 온누리에, 특별히 비통함에 빠진 이들에게 임하셔서 자애로운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 안토니오스 우종현 대신부



축제 중의 축제



부활절은 정교 신앙에서 최고로 거룩한 날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삶은 무의미하다. 죽은 뒤에 우리의 몸을 매장하는 것에 대해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1623-1662)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의 머리와 몸 위로 흙을 던지고 나면 모든 것은 영원히 끝나버린다.” 부활이 없다면 마침내 맞이할 사람의 끝은 죽은 송장 위로 던져지는 한 삽의 흙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미국의 사회학자 에릭 호퍼(1902-1983)의 말대로 “우리는 태어날 때 죽음을 선고받고, 삶은 처형장으로 향하는 버스 행렬과 같다. 모든 투쟁과 경쟁은 그 버스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며, 그 여정(旅程)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기도 전에 끝나버리고 만다.”

이런 까닭에 부활절은 정교회에서 축제 가운데 최고의 축제인 것이다. 이 날은 우주가 일찍이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이며, 궁극적인 구원의 축제이다. 마치 성 대토요일 아침의 한 성가에서 노래하듯이: “오늘 지옥은 신음하며 외치는도다. 나의 제국은 무너졌도다. 십자가에 달린 목자가 아담을 일으켰도다. 나는 내 노예들을 다 빼앗겼도다... 십자가에 달린 자가 무덤들을 다 비우는도다. 죽음의 제국은 무너져 내렸도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십자가와 거룩한 부활에 영광 돌리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 아타나시아

소 식

대교구

■ 성화 수업

올해도 소존 야누디스 교수의 지도로 성화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올해는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5월 20일(월)~6월 22일(토)까지, 매주 월~토요일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 6월 23일 주일에 성화 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성화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02)362-700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의 평화에 대한 강의**
지난 5월 3일(금)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 통일위원회에서 주관한 ‘2019 마주이야기’에서 ‘정교회의 삶과 역사, 그리고 평화 영성’이란 주제로 강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가 정교회의 전반적인 소개와 특히, 정교회의 행정적 구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면서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청과 총대주교가 세계정교회의 첫 자리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

교가 ‘평화에 대해’ 성 대 바실리오스, 신학자 성 그레고리오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세 분의 대주교의 신학적 가르침을 분석하면서 강의하였습니다. 세 교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학적으로도 큰 주제인 평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특히, 평화의 전제 조건으로 사랑과 정의와 내면의 평화가 있어야한다는 결론을 강조하였습니다.

■ 음식 축제

오는 5월 18일(토) 오후 5시~9시까지 성북구 석관동에서 문화 다양성 푸드마켓 ‘다다식탁’ 음식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교회도 함께 참여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봄 야유회

오늘(12일) 성찬예배 후 봄 야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함께 모여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게임을 통해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